

## 『음청사』에 나타난 ‘러시아-혁명’ 이해의 양상\*

황재문\*\*

### [국문초록]

본고는 1905년 러시아 혁명에 대한 당대 한국인의 인식과 이해의 수준을 살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오랜 유배생활을 경험한 적극적인 신문독자였던 온건 개화파 지식인 김윤식의 일기를 검토하였는데, 이는 이 일기가 당시의 한국 신문에 게재된 1905년 러시아 혁명 관련 기사들에 대한 독자(讀者) 차원의 관심의 방향과 이해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다만 일기에서 서술한 바에는 사건 이전부터 김윤식이 가지고 있던 이미지가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우선 김윤식이 보인 러시아에 대한 이해의 양상들을 점검해 보았다. 이러한 검토에 의하면 김윤식은 이른 시기부터 러시아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었으며, 제주도와 지도에서 유배생활을 하던 1897~1907년의 시기에도 이러한 이미지는 유지되고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었다. 당시 동아시아의 국제정세 즉 러시아와 일본의 각축 및 러

\*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08-361-A00007).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조교수

주제어: 김윤식, 신문독자, 음청사(陰晴史), 러시아 인식, 1905년 러시아 혁명  
Kim Yunshik, newspaper reader, *Umcheongsa* (陰晴史), understanding of Russia,  
1905 Russian Revolution

일전쟁의 발발을 상세하게 언급할 때에도 이 이미지는 상당한 영향을 미쳤으리라고 짐작할 수 있었다. 1905년 러시아 혁명과 관련해서는 패전의 원인 또는 결과로서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판단되는데, 김윤식이 당시의 신문 기사 가운데 노동자의 청원 조건이나 자본가의 문제 등을 다룬 부분은 일기에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해석이 가능할 듯하다. 다만 1905년 러시아 혁명을 패전의 원인이자 결과인 일종의 내란으로 이해하는 태도가 김윤식 이외의 인물들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것이었다고 지적할 수 있을지는 다른 사례를 찾아서 살펴야 할 문제이지만, 국제 정세와 관련하여 러시아에 대해 가졌던 당시의 관심의 수준과는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혁명이라는 사건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았다는 경향성은 지적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된다.

## 1. 머리말

조선이 러시아와 처음으로 접촉한 시기는 나선 정벌이 있었던 1650년 대로 알려져 있다. 두 차례에 걸친 무력 충돌이 있었지만, 이를 통해 조선이 러시아에 대해 많은 정보를 얻게 된 것은 아니었다. ‘대비달자’(大鼻獐子), 즉 코가 큰 오랑캐라는 명칭이 대변하듯이 몽골의 별종(別種)이라는 정도의 인식이 오랜 기간 동안 이어졌으며, 1860년의 북경 조약 체결로 국경을 맞대게 되면서 비로소 구체적인 이해가 시도되었다고 할 수 있다.<sup>1)</sup>

결국 실질적인 접촉의 역사는 그리 길지 않았다고 할 수 있을 것인데, 19세기 말에 이르면 두 나라 사이의 관계는 급속도로 밀접해진다. 러시

---

1) 허동현(2002), 『1880년대 한국인들의 러시아 인식 양태: 공포증(恐露症)의 감염에서 인아책(引俄策)의 수립까지』, 『한국민족운동사연구』 32, 한국민족운동사학회, pp. 27-29; 김문식(2009), 『조선후기 지식인의 대외 인식』, 새문사, pp. 217-237. 김문식은 이익을 비롯한 지식인들의 러시아에 대한 인식이 부정확할 뿐 아니라 부정적인 묘사가 많았다고 지적하였다.

아는 점차 조선의 중요한 교류 상대국이 되었으며, 『조선책략』에서 볼 수 있듯이 조선의 대외정책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위치에 놓이는 국가 가운데 하나로 등장하게 된다. 이 시기에는 일본과 중국의 영향 하에 형성되고 유포된 공포증(恐露症)이나 대한제국의 대외 전략의 하나로 등장하는 인아책(引俄策)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관료 지식인 사이에서는 러시아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긍정적 인식이 교차하면서 나타나게 된다.<sup>2)</sup> 또한 러시아에 대한 정보도 상당히 구체적인 수준으로 유입되었는데, 당시에 새로운 매체로 등장한 신문이나 잡지로 인해 큰 시차 없이 정보가 전달되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처럼 짧은 시기에 상당한 양의 러시아 관련 정보가 전달된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자료들이 러시아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의 변화 수준을 입증하는 것인지는 단정하기 어렵다. 당시의 신문이나 잡지의 독자 수도 문제이겠지만, 이미 오랜 기간 동안 축적된 러시아에 대한 인식, 그리고 소문이나 경험을 통해 형성된 러시아인에 대한 이미지가 인식의 변화를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러시아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이라는 문제는 개별 수용자의 측면에서도 따로 검토해 보아야 한다고 지적할 수 있게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매체를 통해 전달되는 정보와 함께 개인으로서의 수용자가 나타낸 반응이나 발언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한국에서 러시아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가장 높아진 시기는 아마도 아

2) 허동현(2002); 허동현(2005), 『개화·일제기 한국인의 러시아 인식에 보이는 고정관념』, 『한국민족운동사연구』 42, 한국민족운동사학회; 배항섭(2008), 『아관파천 시기 조선인의 러시아 인식』, 『한국사학보』 33, 고려사학회; 노대환(2012), 『19세기 조선 지식인들의 대러시아 인식의 변화』, 『역사문화연구』 42,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허동현(2005)에서는 러시아(소련)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양상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파악하였는데, 문명의 주변부에 있는 야만국가나 침략국가로 파악하는 적대적 인식과 독립의 옹호자나 인텔리겐치아의 나라, 이상적 모델로 파악하는 우호적 인식이 있었다고 지적하였다.

관파천으로부터 러일전쟁에 이르는 기간일 것이다. 이 두 사건은 국가의 운명과 직접 관련된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 러시아는 국내적으로 중요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었는데, 짜르 체제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 이어지고 있었으며 그 정점에 ‘1905년 러시아 혁명’이 존재했다. 러일전쟁이 한창 진행되던 시점이기에는 당시의 전황이나 러시아 사정과 관련된 기사들이 한국의 신문에 자주 실렸는데, 그 가운데는 이 혁명에 대한 기사도 적지 않게 나타났다. 일본 또는 서구 언론의 기사를 번역하여 실는 수준이기는 했지만, 러시아의 혁명당 및 1905년 혁명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을 다룬 것까지 나타나기도 했다.<sup>3)</sup>

이처럼 신문에서 러시아 및 러시아 혁명에 대한 정보를 소개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대러시아 인식의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것이라고 평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현상만으로는 당시 한국에서 러시아 특히 1905년 혁명에 대한 대중적인 관심의 양과 질이 특별히 높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듯하다. 신문이나 잡지 등의 매체가 독자의 요구에 따라 외국에 대한 기사를 작성하였으리라고 생각하기 어렵고, 반대로 모든 독자가 신문에 실린 기사들을 균일한 수준의 관심에서 정독하고 수용하였으리라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1905년 러시아 혁명’이 당시의 동아시아에서 상당히 주목된 사건이었다는 점은 일본이나 중국의 사례에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지만, ‘혁명’이라는 문제 자체를 접할 만한 사회적 환경이 조성되지 못했던 한국의 경우에도 유사한 현상이 나타났으리라고 짐작하기는 어렵다는 것도 사실이다.

결국 러시아 및 러시아 혁명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와 인식의 수준은 신문과 같은 매체에 관련 정보가 얼마나 수록되는가보다는 수용자 즉 독자가 그러한 정보에 대해 어떤 관심을 갖고 얼마나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3) Vladimir Tikhonov (2014), “The 1905-7 Russian revolution seen from Korea: Korean Periodicals Debate Revolutionary Russia”, *Horizons* 5-2, Institute of Humanit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통해 검토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이 사건을 다른 독자 투고나 비평과 같은 사례를 검토해야 하겠지만, 당시의 신문에서 그런 사례를 찾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인 듯하다. 다만 간행되지 않은 기록, 특히 개인적인 기록 가운데는 단편적이고 간접적이거나 여기에 해당하는 사례가 일부 나타나는데, 본고에서는 그러한 사례의 하나로써 김윤식(金允植, 1835~1922)의 일기인 『음청사』를 검토하고자 한다.<sup>4)</sup>

## 2. 관료-유배객-신문독자로서의 김윤식

김윤식은 처음 관직에 오른 1865년 12월부터 세상을 떠나기까지 5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일기를 썼는데, 영선사(領選使)로 선발된 1881년 이후의 일기가 현재 전한다.<sup>5)</sup> 그는 유신환(俞莘煥)과 박규수(朴珪壽)의 문하에서 수학하였으며, 영선사의 임무를 마치고 귀국한 이후에는 강화유수를 거쳐서 협판통리내무아문사무(協辦統理內務衙門事務), 협판군국사무

4) 김윤식에 대한 연구는 여러 분야에서 이루어졌다. 문학 분야의 경우에는 권오돈(1960), 『近朝의 漢文學에 對한 一考察: 滄江과 雲養을 中心으로』, 『인문과학』 5, 연세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이래로 한시문(漢詩文) 및 고문론(古文論)에 대한 연구가 다수 이루어졌다. 최근에는 정치사상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논의가 다수 발표된 바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로는 장인성(2002), 『장소의 국제정치사상』, 서울대학교출판부; 기무라 간, 김세덕 역(2007), 『조선/한국의 내셔널리즘과 소국외의식』, 산처럼; 김성배(2009), 『유교적 사유와 근대국제정치의 상상력』, 창비를 들 수 있다. 특히 김성배(2009)는 김윤식의 생애와 활동을 상세하게 다루어서 참고할 만하다.

5) 현재 전하는 일기는 1881년 9월부터 1921년 12월까지의 것이며, 국사편찬위원회에서 한국사료총서 제6권(음청사, 1958)과 제11권(속음청사, 1971)으로 간행하였다.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활자본으로 간행하면서 1881년 9월에서 1883년 8월까지의 일기를 “음청사”로, 1887년부터 1921년까지의 것을 “속음청사”로, 그리고 1883년에서 1887년까지의 것을 “추보음청사”(追補陰晴史)로 명명하였는데, 이를 모두 합하여 “음청사”로 일컫기도 한다. 본고에서는 김윤식의 일기 전체를 “음청사”로 일컫되, 인용을 할 때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붙인 서명에 따라 인용면수를 밝히기로 한다.

[표 1] 김윤식의 유배지별 독서 목록

<p>면천 유배기 (1887~1893)</p>	<p>資治通鑑, 句五志, 囊中訣, 道德經, 江漢集, 星軺指掌, 金陵集, 弁州集, 東國通鑑, 白沙集, 魯史零言[李恒福 編], 冲庵集, 說選, 韓詩外傳, 正宗紀事, 晚圃家狀, 寒磻集, 東輿攷, 服齋遺稿, 東國通鑑, 宋鑑, 皇明通紀輯錄, 龜峯集, 安文成公實記, 四友堂集, 柱苑筆耕, 邵亭集, 朱子語類, 禮記, 南谷集, 西事彙編[西國近事彙編], 冶谷集, 語林[明何良俊]</p>
<p>제주 유배기 (1897~1901)</p>	<p>車雲岩雪冤錄, 韓魏叢書, 漁隱叢話, 皇明通紀, 傳燈錄, 復初齋集, 唐代叢書, 瀛寰志略, 漢城新報, 清議報, 皇城新聞, 參同契, 西遊記, 攝生祕剖, 八代詩選, 胡傳春秋, 蘆沙集答問類編</p>
<p>지도 유배기 (1901~1907)</p>	<p>今古奇觀, 戊戌政變記[玄采 編], 燕岩集, 錦溪集, 竹齋集, 東史輯要[金澤榮], 公法會通, 世說抄, 麗史提綱抄, 明朝紀事本末抄, 宋名臣錄抄, 左傳, 經國美談, 泰西新史, 傳燈錄, 大東新報, 大韓日報, 四書正文, 忠孝合璧, 大韓每日申報, 朝陽報, 越南亡國史, 自強會月報, 西友會報, 帝國新聞, 太極會報[太極學報]</p>

(協辦軍國事務), 독판교섭통상사무(督辦交涉通商事務) 등의 직책을 맡으면서 개화 정책을 실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갑오개혁 이후에는 외무아문대신에 올랐으며, 노년에는 중추원 의장으로 활동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중요한 직책들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김윤식이 관료로서 활동한 기간이 길었던 것은 아니었다. 40세가 되던 1874년에 대과에 급제하여 비교적 늦게 벼슬길에 나아갔을 뿐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유배 또는 근신 생활을 했기 때문이다. 김윤식은 1887년부터 1893년까지 면천(漣川)에서 유배 생활을 했고, 1897년에 제주도에 유배되었다가 1901년부터 1907년까지는 지도(智島)로 유배지를 옮겨 생활해야 했다. 그렇지만 이 기간 동안에도 서울 소식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였으며, 당시의 일기에 그 흔적을 남겼다. 이는 아들인 김유증(金裕曾)을 비롯하여 그의 문인(門人)을 자처했던 육종운(陸鍾允)이나 나인영(羅寅永, 즉 羅喆) 등이 유배지를 오가면서 소식을 전해주었고, 때로는 서간이나 책을 보내준 덕분이었다.

유배 기간 동안 김윤식은 서울에서 보냈거나 유배지에서 얻은 문헌들을 지속적으로 읽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음청사』에 기록한 것만 정리해 보아도 그 분량이 상당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김윤식이 이미 노년에 접어들어 유배객이면서도 세상에 대한 관심을 잃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근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표 1]에 제시한 독서 목록이 완전한 것은 아니다. 우선 『음청사』에서는 책을 전달받거나 빌린 경우 또는 특별한 감상이 있는 경우에만 책의 제목을 언급하기 때문에, 원래 갖고 있었던 문헌들은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 이 목록이 각각의 문헌들을 처음으로 접한 시점을 나타낸 것은 아니기도 한데, 일기에서는 처음 언급되는데도 “다시 읽었다(復閱)”고 서술한 사례를 적지 않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록을 통해 김윤식의 독서 경향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우선 동아시아의 전통적인 고전과 개화사상이나 정책을 담은 서적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전통적 지식인이었던 김윤식이 가진 관심의 폭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즉 김윤식은 전통적인 지식과 외래적인 지식 및 정보를 함께 주목해야 했던 것이다.

본고의 논의와 관련해서는 다수의 신문과 잡지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김윤식은 초창기 신문의 발간에도 참여한 바 있지만,<sup>6)</sup> 신문과 잡지를 구해 읽은 기록을 유배기의 일기에 지속적으로 남기고 있다. 이러한 기록은 제주도 유배기부터 나타나는데, 특히 지도 유배기에는 의식적으로 여러 종류의 신문을 구해서 읽은 흔적들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앞에 제시한 독서 목록에 그 상황이 정확히 나타나지는 않는데, 이 가운데는 제호를 밝히지 않은 신문들도 포함되어

6) 김윤식은 영선사로 활동하면서 청나라 관리들과 신문의 속성에 대해 대화한 바 있다. 또한 『한성순보』의 창간에도 관여하였으며, 『한성순보』 간행에 참여한 바 있는 이노우에 가쿠고로(井上角五郎)에게 글을 써 주기도 하였다.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는 신문의 내용을 일기에 기록해 두기도 하였는데, 주로 내용을 요약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어서 그가 어떤 기사에 관심을 갖고 있었는지를 이를 통해 짐작해볼 수도 있다. 요컨대 제주 및 지도 유배기의 김윤식은 상당히 적극적인 신문 독자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905년 러시아 혁명이 일어난 시기가 지도 유배기(1901년~1907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본다면, 본고의 주제와 관련해서는 김윤식을 오랜 관료로서의 경력을 지닌 70세 전후의 유배객이자 적극적인 신문독자라고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본고에서는 1905년 전후로 시기를 한정하지 않고 『음청사』에 나타나는 러시아에 대한 전반적인 기록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1905년 러시아 혁명’이라는 사건에 대한 이해에는 김윤식이 일생 동안 쌓아온 러시아에 대한 이미지가 관여할 수 있으리라고 예상되기 때문이다. 김윤식은 러시아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보였다고 이미 지적된 바도 있는데,<sup>7)</sup> 실제로 그러한지 또 어떤 측면에서 그러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일기 자료인 『음청사』가 일정한 한계를 지니고 있음은 분명하지만,<sup>8)</sup> 본고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인정하면서 그 대체적인 양상에 대해 먼저 검토해 보고자 한다.

7) 김성배(2009), pp. 211-218. 김성배는 김윤식이 ‘친러’는 의리가 아니라고 이해했다고 보았으며, 중국에서의 정세를 보면서 그 흥중에 ‘친러=수구=망국’이라는 등식이 성립할 만했다고 지적했다.

8) 『음청사』는 일기이기 때문에 몇 가지 중요한 제약 요인을 지닌다. 일기를 쓸 만한 시간적 여유가 항상 있는 것은 아니어서, 때로는 자세하게 기술하지 못하거나 아예 일기를 쓰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김윤식 경우 외무 관료로서 활동할 때의 일기는 소략하거나 ‘추보’(追補)로만 남아 있다. 유배기와 같은 특정한 시점에는 자신의 유배 해제나 친척 및 지인의 등용 여부와 같은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서 다른 주제에 대한 언급은 소략해지기도 한다. 개인의 일기는 사후에 수정되는 사례도 적지 않은데, 때문에 특정한 구절이 기록된 시점의 것이라고 확정하기는 어렵다.

### 3. 제주 유배기 이전의 인식: 편견 또는 부정적 이미지의 형성

김윤식은 관직 생활 초기에는 러시아와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는 못하였다. 『조선책략』이 유포된 이후 러시아의 위협 여부가 국가적 관심의 대상이 되었지만, 김윤식은 청과의 교섭에 주로 참여하였고 러시아와의 교섭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았다. 때문에 초기의 러시아에 대한 인식은 대체로 막연한 것이었으며, 어떤 면에서는 편견에 가까운 일방적인 것이기도 했다. 또 때로는 서양/서양인 일반에 대한 인식의 일부로서 나타나기도 했다.

일기에 나타난 초기의 사례는 영선사로 파견되어 청국 관리들과 주고 받은 필담(筆談)에서 찾아볼 수 있다. 다음은 당경성(唐景星), 허기광(許其光)과 진행한 필담의 일부이다.

[김윤식] 일찍이 듣건대 태서의 여러 나라들 가운데 러시아 이외에는 남의 토지를 탐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이 말 또한 잘못된 것이었습니다(曾聞泰西諸國, 惟俄外不貪人土地, 此說亦妄.).

[당경성] 대개 토지를 탐하지 않는 나라가 없는 것은 돈을 탐하지 않는 사람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大約各國, 無不貪土地, 如人無不貪銀錢.).<sup>9)</sup>

[김윤식] 서양의 여러 나라에서는 아래에서 의론이 일어나고 윗 자리에 있는 자가 편견이 없으니, 그런 까닭에 실패하는 일이 드뭅니다(泰西各國, 議起於下, 在上者無成心, 故鮮有敗事.).<sup>10)</sup>

[허기광] 태서에서 윗자리의 사람에게 편견이 없는 나라는 미국 정도입니다. 영국은 아직 과거의 법도를 지니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찬탈과 시해가 잇달아 나타나고, 러시아와 독일에서는 그 임금

9) 『음청사』 1882년 3월 22일, p. 126.

10) “성심”(成心)은 『장자』의 「제물론」(齊物論)에 나오는 말이다. 주관적으로 형성된 일정한 견해를 뜻하니, 편견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을 원수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 모두 배울 만하지 않습니다(泰西無成心者, 美而已. 英尚能持其故. 於法則篡弑相仍, 俄·德, 屬仇其上, 皆不可爲訓.).

[김윤식] 서양의 나라에서는 형제의 인륜이 없다고 들은 것 같은데, 과연 그렇습니까(似聞西國, 無兄弟人倫, 信否.).

[허기광] 요즈음에 와서 조금 윤리를 알게 되었는데, 또한 거의 중화의 풍속에 물들게 되었기 때문입니다(近日, 稍知倫紀, 殆亦漸染華風.).<sup>11)</sup>

당경성과의 필담에서는 영선사 활동 이전부터 김윤식이 가졌던 러시아에 대한 인식이 엇보인다. 러시아가 다른 서양 국가들과는 달리 남의 토지를 탐내는 나라라고 들었다 하였으니, 김윤식은 러시아가 서양 국가의 보편적인 덕목을 지니지 못한 특이한 나라라는 생각을 이미 갖고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프랑스의 베트남 침략에 대해 듣고 발언한 것임을 고려하면 프랑스 또한 러시아와 같은 나라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모든 나라가 그러하다는 당경성의 말을 김윤식이 받아들였을지는 분명하지 않다.

허기광과의 필담에서 김윤식은 서양 국가의 장단점을 모두 거론하였다. 장점이란 윗사람이 편견 없이 아랫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일 자세를 갖추고 있다는 것이며, 단점이란 형제와 같은 인륜(人倫)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다.<sup>12)</sup> 서양 국가를 직접 접한 경험이 있는 허기광은

11) 『음청사』 1882년 5월 9일, p. 158.

12) 김윤식이 윗사람에게 편견이 없어서 실패가 드물다고 지적한 것이 어떤 근거에서 나온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다만 김윤식은 국왕의 권한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는데, 서양에서의 상하 관계에 대한 이해 방식이 김윤식의 주장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점은 유의해 볼 만하다. 국왕 권한의 제한을 지향하는 김윤식의 견해에 대해서는 김성배(2009), pp. 237-262 참조. 다만 여기서 언급한 “태서 각국”에 러시아가 포함되는지는 확정하기 어렵다.

조금 다른 의견을 제시한다. 미국이나 영국 정도가 상하 간에 조화를 이룰 뿐이며 프랑스, 러시아, 독일 등은 임금을 죽이거나 원수로 여길 만큼 갈등이 크다고 했고, 최근에는 서양에서도 중국의 풍속이 퍼지면서 인륜을 조금 알게 되었다고 했다. 이 필담에서 김윤식은 귀신을 숭상하고 겸애(兼愛)를 행하며 기교를 숭상한다는 점에서 서양을 묵자의 부류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는데, 허기광 또한 이에 동의한다. 이러한 이해가 아직 구체적인 수준에 이른 것이라 하기는 어렵겠지만, 러시아를 이해하는 기본적인 틀은 여기서 어느 정도 갖추어진 것이라 해도 좋을 것이다.

김윤식은 이후 러시아와의 통상조약이 체결된 시점에는 관직에 있었기에 러시아와의 실제 접촉 경험을 갖게 되지만, 면천 유배기의 일기에서도 러시아를 구체적이거나 개별적으로 묘사하는 예는 잘 보이지 않는다. 서울에 퍼진 외국인에 의한 아동 납치 소문을 언급하면서 외국인에 대한 백성들의 막연한 두려움에 대해 근심하고 비판한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sup>13)</sup> 구체적 인식의 수준에 이른 것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독일의 공맹학교(孔孟學校)나 한문학교(漢文學校)를 언급하면서 동양의 좋은 풍속이 서양으로 전파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낸 사례도 보이는데,<sup>14)</sup> 이는 앞서 살펴보았던 허기광의 견해와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며 역시 추상적인 수준이라고 할 것이다.

면천 유배기에 러시아에 대해 비교적 자세히 언급한 예로는 두 가지를 찾을 수 있다. 하나는 러시아 황태자가 일본 순사 쓰다 산조(津田三藏)의

13) 1888년 5월 13일과 23일의 일기에는 외국인이 승복을 입고 유괴하거나 약을 섞은 엿을 먹여서 납치한다는 소문에 대한 언급이 나타난다. 서울에서 소문이 사라진 뒤에도 향리에서는 계속 소문이 퍼지고 있다고 하였다.

14) 『음청사』 1890년 7월 15일, 1891년 2월 17일. 공맹학교나 한문학교에서는 性命之學을 가르친다고 하였는데, 실제의 설립 목적을 이해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김윤식은 이 사건으로부터 서양이 동양을 배우게 되리라는 스승 박규수의 말이 옳았다는 결론을 이끌어낸다.

칼에 부상을 당한 일 즉 ‘오쓰’(大津) 사건에 대한 것인데, 1891년 4월 21일(양력 5월 28일)의 일기에 기록되어 있다. 사건이 일어난 것이 5월 11일이니, 유배지에 있으면서도 상당히 빨리 소식을 접했던 셈이다.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사쓰마(薩州)로, 범인이 자유당(自由黨)의 난민(亂民)으로 기술되는 등 부정확한 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는데,<sup>15)</sup> 러시아에서 복수를 위해 군사를 일으키려 하고 일본에서 이에 대비하는 등의 위기가 있었다고 묘사하고 있다. 정보의 출처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정부를 원수로 여기는 자의 행위이며 일본정부의 뜻이 아니다(讎視其朝廷者之所爲, 非日本政府之意)”라는 일본 측의 해명이 제시된 것을 보면 일본에 퍼진 소문이 이 기록에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다른 하나는 영선사 활동 시기의 필담 기록을 모은 책을 편찬하면서 쓴 『천진봉사연기』(天津奉使緣起)에서 찾을 수 있다. 1892년 6월 6일의 글이니, 10여 년이 지난 뒤에 유배지에서 영선사 활동 시기를 회고한 것인 셈이다. 김윤식은 “러시아는 그 영토를 블라디보스토크까지 넓혔는데, 여기에 군사를 주둔하고 항구를 열었다. 우리나라와는 강물 하나만을 사이에 두고 있으니, 마치 호랑이가 곁에 있는 것과 같다.”<sup>16)</sup>고 쓰고 있는데, 여기서 호시탐탐 남의 땅을 노리는 국가로서의 이미지가 구체적으로 형성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894년 6월에 강화유수로 복귀한 이후의 일기에서는 러시아가 자주 그리고 구체적으로 언급된다. 이는 기본적으로는 김윤식이 서울에 머물면서 외부(外部)의 업무에 주력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인데, 실제로 러시아 황제 조문 등을 위해 러시아 공관을 방문하거나 러시아 공사를 접촉

15) 일본 자유당에 대해서는 1888년 1월의 『한성주보』(漢城週報)에 유신 시대의 제후(諸侯)·왕공(王公)의 자손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반란을 도모한다는 식의 묘사가 보인다. 이러한 인식이 반영된 것일 가능성도 생각해 볼 만하다.

16) 『속음청사』상, 1892년 6월 6일, p. 228. “俄羅斯廓其境土, 至于海蔘威, 屯兵開港, 與我國邊疆只隔一水, 如虎豹之在傍.”

한 일 등 공적인 업무가 자주 등장한다. 그렇지만 자신의 업무나 체험과는 거리가 있는 소문도 일부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러시아에 대한 관심의 방향이나 인식의 틀이 엿볼 수도 있다. 베베르[韋貝, Weber Karl Ivanovich]의 동정에 대한 소문들이 그 예가 될 수 있는데, 김윤식은 복귀 이전의 일기에서 이미 베베르가 일본과 조선 정부 간의 조정을 시도했다는 소문을 언급했으며 명성황후 시해 사건과 관련해서는 오직 러시아만이 일본을 의심하여 병함(兵艦)을 불러들여서 왕궁을 호위하겠다는 등의 말을 했다는 소문을 기록하기도 했다. 또 잘못된 소문임이 밝혀졌다고는 했지만 대원군이 블라디보스토크에 서신을 보내 러시아에 구원병을 청했다는 소문을 언급하기도 했는데,<sup>17)</sup> 이를 통해 김윤식이 ‘외국의 영토를 탐내는 러시아’라는 이미지를 여전히 갖고 있었던 것으로 짐작해볼 수 있다.

1896년 1월의 아관파천 이후에 김윤식은 관직을 잃었으며, 서울을 떠나 피신 및 근신 생활을 하게 된다. 이 시기에도 러시아의 동정은 자주 언급되는데, 아일밀약(俄日密約, 1897. 3. 2 및 3. 22), 러시아 사관(士官)의 입국(1897. 8. 12), 공사의 교대(1897. 9. 5), 재정 고문 알렉세예프(稜樸燮, Alexieff)의 동정(1897년 10월~11월) 등에 대한 기술이 보인다. 당시 김윤식은 과천 및 광주(廣州, 지금의 방이동)에 머물고 있었으니, 방문객들로부터 이와 같은 정보를 얻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 일기들에서는 일본과 러시아에 의해 국권이 침탈되고 있는 상황을 근심하는 모습을 일부 찾을 수 있지만, 정국의 변화에 따라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결정될 것인지가 더 큰 관심사였던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17) 『속음청사』상, 1896년 2월 1일, p. 390.

## 4. 제주 유배기의 기록: 러시아와 일본의 충돌에 대한 예상

1897년 12월 21일의 일기에서는 자신을 제주도로 종신정배(終身定配)하는 명이 내렸다고 기록했다. 이후 1901년 7월 10일에 새로운 유배지인 지도로 떠날 때까지 제주도에서 유배 생활을 하게 되는데, 당시 김윤식은 나인영(나철)과 동행하였으며 편지와 신문을 통하여 외부 소식을 접할 수 있었다. 한편 이 시기에는 제주도에 두 차례의 민란이 있었는데, 김윤식을 비롯한 유배객들은 여기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되었다. ‘방성철의 난’과 ‘이재수의 난’으로 일컬어지는 이 두 차례의 민란은 부분적으로 외국 세력과 연관된 것이기도 하였으므로,<sup>18)</sup> 민란의 과정에서 당시의 국제 정세와 관련된 소문들이 널리 퍼지기도 하였다. 유배지인 제주도가 서울과 멀리 떨어져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의 일기에 러시아에 관한 기록이 적지 않게 나타나는 것은 이러한 배경 때문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서 『음청사』에서의 언급들을 살펴보기로 하자. [표 2]는 제주도 유배기 동안 작성된 일기 가운데 러시아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편지에는 서울에 퍼도는 소문과 신문에 실린 기사가 모두 포함될 수 있다. 일기에서 ‘편지’를 출처로 거론한 부분은, 결국 소문일 수도 기사일 수도 있는 셈이다. 그렇지만 편지에서 언급하는 신문 기사의 내용은 결국 편지 작성자의 관심이나 이해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김윤식 자신이 신문 독자로서 정보를 찾아내는 것과는 구별해야 할 것이다.

이 시기의 일기에서 러시아를 거론한 사례들은 대체로 국제 정세의 변

18) 『음청사』에서는 방성철의 난을 1898년 2월 8일에서 4월 2일까지, 이재수의 난을 1901년 2월 9일에서 6월 13일까지 다루었다. 이재수의 난에 대해서는 특별히 상세한 묘사가 이뤄지고 있는데, 지도로 유배지를 옮긴 이후에도 그곳에 전해진 소식을 다시 언급하였다.

[표 2] 제주도 유배기의 러시아 관련 기록

일자	출처	주요 내용
1898. 3. 10	배(顯益船)	절영도 문제, 한아회사(韓俄會社), 러시아 은화 통용
1898. 3. 21	한성신보	절영도 문제, 아한도승은행(俄韓道勝銀行) 설치
1898. 4. 5	편지	러시아에 대한 반발 여론, 사관 및 고문관 철수의 건
1898. 6. 16	편지	일·러의 협약(한국의 자주, 고문관 파견 사전 협의)
1898. 11. 11	북경의 소식[近信]	청 황제의 독살설(황태후-러시아의 연계에 대한 소문)
1899. 4. 12	편지	서양 제국의 회담(러시아의 농간으로 실익이 없을 것)
1899. 12. 1	편지	러시아·영국·일본의 갈등과 전쟁 준비
1900. 1. 31	일본의 배	러시아와 일본의 개전설
1900. 2. 8	소문[傳聞]	러시아와의 밀약설로 인한 처벌 소식(이용익 등)
1900. 3. 3	편지	러시아와 일본의 화평조약, 개전설 사라짐
1900. 8. 23	편지	의회단 운동 이후의 처리 문제
1900. 11. 9	편지	의회단 운동에 대한 처리 및 러시아의 불만
1901. 2. 11	근일 신문	유인석이 러시아에 구원병을 청했으나 실패했다는 소문
1901. 3. 2	황성신문/ 한성신보	러시아·일본 밀약설과 일본의 반응
1901. 3. 13	편지	아청밀약에 대한 일본의 반응(흑룡회/수상 이토)
1901. 6. 5	일본 순사 [대화]	일본의 현황에 대한 문답 → 러일개전의 견해(김윤식)

화와 관련된 것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세력이 커진 러시아가 라이벌인 일본과 전쟁을 벌일 것인가 즉 화평(和平)인가 개전(開戰)인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유배를 떠나기 직전의 일기에서도 이미 국제 정세에 대한 관심은 나타난다. 김윤식은 1897년 12월 25일에 제주 유배의 명을 받고 고등재판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일본인들이 한국에서 발행하던 신문인 『한성신보』

(漢城新報)를 읽었다고 했다. 이 날의 일기에서는 독일, 러시아, 일본, 영국이 청국의 몇 지역을 점령하였으며 영국 군함이 목포에 정박하면서 거문도를 엿보고 있다는 기사를 옮기고서 “탄식할 만하다(可嘆)”는 평을 덧붙였다. 일본을 포함한 열강의 침략이 이어지는 상황임을 인식한 상황에서 유배의 길에 오른 것이다.

유배지 제주도에서 들은 러시아에 대한 첫 번째 소식은 일본과 곧 전쟁을 치르게 될 것이라는 소문이었다.<sup>19)</sup> 이 소문은 제주도에 널리 퍼진 것이었던 듯한데, 방성칠과 같은 인물까지도 대강의 사정에 대해 짐작할 수 있었던 정도였다.

방성칠—곧 일명 방갑이다—이 유배객 최영순, 김낙영을 초청하여 함께 일을 도모할 것을 요청하니, 최영순과 김낙영이 허락하는 체하였다. 방성칠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제주도는 방성(房星)의 분야에 속하고 내 성이 방이니, 서로 부합합니다. 또 비기(秘記)에는 방(房)과 두(杜)의 장수라는 말이 있는데, 또한 내 성과 부합합니다. 이것이 하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나라의 운수는 이미 쇠하였고 진인(真人)은 마땅히 섬에서 나올 것이니, 이 기회를 잃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제주의 유배객들이 지금처럼 많았던 때가 없으니, 이는 문무(文武)가 함께 갖추어진 것입니다. 하늘이 나의 일을 돕는 것입니다. 이제 일본과 러시아가 다투고 조정에는 일이 많으니, 여기에 군사를 보낼 겨를이 없을 것입니다. 또 온다 하여도 두려워 할 것이 없습니다.”<sup>20)</sup>

19) 『속음청사』상 1898년 3월 3일, p. 457. “日·俄將不免開仗云.”

20) 『속음청사』상 1898년 3월 4일, p. 457. “房七星[卽甲一名]招謫居人崔永淳·金洛榮, 要與同事. 崔·金皆佯許. 房曰, 濟州房星分野, 吾姓房, 與之相符. 且秘記有房·杜之將, 亦與吾姓相符. 此非天耶. 今國運已衰, 真人當出於海島, 此機不可失也. 且濟州謫客之多, 未有如今日, 文武俱修, 此天贊吾事也. 今日·俄相爭, 朝廷多事, 未暇派兵來此, 雖來不足畏也.”

남학당(南學黨)의 일원인 방성칠은 육지에서 온 사람이니, 섬의 주민들과는 다른 배경을 갖고 있었다고 할 만하다. 특히 남학당이 동학을 계승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러시아와 일본이 경쟁하던 당시의 국제 정세에 대해 남다른 관심을 가졌을 수도 있다.

일기에서 러시아의 이미지는 대체로 부정적으로 묘사되는데, 김윤식 개인이 러시아와 악연이 있다는 점도 일부의 이유가 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보다는 이미 갖고 있었던 부정적 인식이 이어진 것이 더 큰 이유일 것이다. 청나라 황제의 독살에 관여했다는 소문, 유인석의 구원 요청을 받아들였다면 서북 지역에 큰 비극이 있었을 것이라는 판단, 청나라나 한국과의 밀약을 통해 영토를 점유하려는 음모를 감추고 있다는 이해 등은 사실과 거리가 먼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인 것처럼 서술되곤 한다. 김윤식이 러시아의 속셈에 대해 판단한 다음의 서술은 그러한 점을 잘 보여준다.

생각건대 이 회담(네덜란드에서 개최한 열강의 평화회담)이 유명무실한 것은 러시아의 농간 때문이다. 시베리아 철도가 완공되기 전에 여러 나라에서 군대를 움직이면 철도 공사에 방해가 될까 두려워하여, 러시아에서 잠시 이를 빙자하여 군대를 쉬도록 하게 한 것이다.<sup>21)</sup>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인 문제, 즉 러시아와 일본의 개전 여부에 대해서는, 김윤식은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사실 일본과 청나라, 일본과 러시아 사이에 전쟁일 일어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미 영선사 활동 시기부터 현실로 나타날 것이라고 근심한 바 있었는데, 제주도에서 들은 소식들은 이러한 근심을 확신으로 바꿔놓고 있었다. 일본인 순사들과 대화한 이후에 김윤식은 다음과 같이 자신의 생각

21) 『속음청사』상 1899년 4월 12일, p. 506. “想此會有名無實，蓋緣俄國之愚弄，恐西比利亞鐵路未竣之前，諸國動兵，有妨鐵路之役，故姑藉此息兵。”

을 밝히고 있는데, 이는 이재수의 난이 정리되던 시점의 일이었다.

이로 보건대 일본과 러시아 사이에는 반드시 아무 일이 없을 수는 없을 것이다. 러시아 또한 전함을 크게 늘리고 있고 이미 청나라 북부에 육군 3만 명을 수송하였으니, 전쟁이 일어날 형세는 이미 현저한 것이다. 북경의 강화회담이 결말이 난 후에는 개전의 설이 나타날 것이다.<sup>22)</sup>

## 5. 지도(智島) 유배기의 기록: 러일전쟁과 러시아 혁명

김윤식의 유배지가 옮겨진 직접적인 계기는 이재수의 난이었다. 제주도 유배객 가운데 일부가 민란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았고, 나머지는 전라도 지역의 섬들로 유배지를 옮기는 처분을 받았다. 김윤식의 유배지로 정해진 지도(智島)는 목포 인근에 있는 섬인데, 목포 지역에는 다수의 일본인들이 머물고 있었다. 때문에 김윤식은 서울에서 전달된 편지나 신문 뿐 아니라 현지의 일본인들에게서도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이 시기에도 러시아에 대한 김윤식의 관심은 거의 일본과 연결되고 있었다. 지도에 도착한 지 10여 일이 지난 1901년 7월 25일의 일기에서는 러시아와 일본의 세력이 크게 부각된 국제 정세를 자연현상을 보면서도 떠올리고 있는데,<sup>23)</sup> 이는 일종의 한담일 수도 있겠지만 당시의 관심사나 인식의 방향과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다.

22) 『속음청사』상 1901년 6월 5일, p. 584. “以此觀之, 日俄之間, 必不能無事, 俄國亦大増戰艦, 已運陸軍三萬于北清, 戰形已著, 俟北京媾和談辦出末後, 有關戰之說”

23) 『속음청사』상 1901년 7월 25일, p. 596. “(아들이) 『황성신문』을 빌려서 보내주었다. 나라 안에 가뭄이 극심하여 경기와 호서 지방은 붉게 변하였고 공주와 군산은 더욱 심하다고 한다. 그런데 경성과 부산만은 비가 충분히 내린다고 한다. 이 두 곳은 일본, 러시아와 인접한 지역이니, 또한 기이하도다(借送皇城新聞. 邦內旱憂太甚, 圻湖赤地, 公州·群山尤甚. 惟鏡城·釜山雨足, 此兩處隣接日·俄之地, 亦可異也).”

[표 3] 러일전쟁 이전의 지도 유배기 러시아 관련 기록

일자	출처	주요 내용
1901. 9. 5	황성신문	러시아·일본의 밀약설(만주·한국 점령의 상호 인정)
1901. 11. 6	편지	러시아에 예측된 만주 풍경(일본의 한국 점령 연상)
1902. 1. 28	편지	원세개 집권 이후의 만주 상황(러시아/일본의 대응)
1902. 2. 26	편지	영국과 일본의 압박에 의한 러시아의 만주 철군
1902. 3. 13	편지	영일협상 공포 북경에서의 환영(러시아는 인심 잃음)
1903. 5. 13	윤주찬(尹楸贊)편지	삼림 문제로 인한 개전설
1903. 5. 21	황성신문(13~19일)	러시아 의주로 파병. 일본의회의의 개전 결의
1903. 5. 26	황성신문(20~26일)	러시아의 청국 압박. 일본은 동정을 살핌
1903. 6. 4	황성신문(29~4일)	의주, 용천 지방에 러시아 병사 주둔
1903. 7. 4	일본인편지(정운복)	일본 조정에서의 개전 결의 소문
1903. 7. 8	황성신문(5~9일)	개전 결의의 설
1903. 7. 18	황성신문(17일)	일본, 러시아의 북경 담판(만주 문제)
1903. 8. 13	황성신문(11~15일)	일본과 러시아의 개전 준비
1903. 9. 14	신문(14~18일)	개전설과 만한교환설(滿韓交換說)
1903. 10. 3	편지	개전설로 인한 국내의 소동(소를 잡아먹는 사람들)
1903. 10. 9	황성신문(9~12일)	개전의 기미
1903. 11. 8	편지	개전 소문으로 인한 국내의 물가 상승
1903. 11. 11	신문(3장)	화평의 조짐이 있으나, 러시아 병사는 계속 주둔
1903. 11. 14	황성신문(18일)	화평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
1903. 12. 8	황성신문(10~14일)	일본 정부 내의 개전-화평 논의
1903. 12. 29	황성신문(1~5일)	일본, 청국, 러시아의 입장
1904. 1. 12	편지	청나라에서의 일본 원조 분위기
1904. 1. 19	황성신문(21~24일)	서울의 분위기(임진란 때 올린 북이 울림)

## 5.1. 러시아·일본의 갈등과 개전설(開戰說)

지도 유배 초기에는 러시아와 일본 간의 갈등과 경쟁이 심해지고 있었다. 『음청사』에서는 두 나라 사이의 형세 변화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그 내용을 날짜별로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러시아와 일본은 전쟁을 할 것인가 아니면 화평을 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한국이 그 결과에 따라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었다. 편지와 신문을 통해서 전해지는 소식은 개전의 가능성이 높아짐을 알려주는 쪽이 우세한 듯하지만, 때로 화평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여기에는 어느 정도는 희망 사항도 섞여 있는 것이 아닐까 한다.

전쟁이 실제로 일어나고 마무리된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김윤식은 만하고환설(滿韓交換說) 즉 러시아가 만주를 차지하고 일본이 한국을 차지한다는 밀약이 논의되고 있다는 점을 이미 알고 있었는데, 밀약이 체결된다면 한국이 일본에 예속될 것은 분명한 일이었다. 김윤식은 일본이 러시아보다는 낫다는 생각과 결국은 특별히 다를 것이 없다는 생각을 함께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sup>24)</sup> 이때도 러시아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는 여전히 유지되는 것이 사실일 듯하다. 전쟁이 일어날 경우에는 일본을 돕겠다는 중국인들이 여러 차례 언급되는 것은, 이러한 인식과도 연관된 것일 듯하다.

한편으로는 정세의 변화에 대응하는 한국 내부의 상황에 대한 묘사도 일부 나타나는데, 그 장면은 적어도 오늘날의 관점에서는 비극적으로 이

24) 『속음청사』상 1901년 11월 6일, p. 608. “만주에 있는 청국인들은 러시아인에게서 혹독한 노역과 세금을 요구받고 있다. 살아갈 방도가 없어 소리만 지를 뿐이니, 비참하여 차마 볼 수가 없다고 한다. 장래에 일본인들이 우리나라 사람을 대우하는 것이 러시아인의 흉폭함보다 조금 낫다고 하더라도, 그 차이는 얼마나 되겠는가. 개탄스러울 따름이다(淸人之在滿洲者, 被俄人虐使苛斂, 無以聊生, 呼號顛連, 慘不忍見. 將來日人之待我人, 縱云稍勝於俄人之凶暴, 然相去幾何, 可慨也已).”

해될 만하다. 한 가지 예를 제시한다.

금년 추석에는 마을마다 소를 잡는데도 고기값은 계속 오르고 있다. 민간에서는 일본과 러시아가 전쟁을 할 것이라는 설로 인하여 공연히 소동이 일어나니, 여기저기서 소를 잡아서 먹곤 한다. 또한 가소로운 일이다.<sup>25)</sup>

관료들이 일본이 강한지 러시아가 강한지를 생각하며 한국이 어느 편에 서야 할 것인지를 고민하였는데,<sup>26)</sup> 백성들은 눈앞에 다가온 전쟁의 소식을 접하고는 키우던 소를 잡아먹는다. 전쟁이 시작되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것이고 생업의 자산인 소는 더 이상 자신의 소유물일 수 없음을 짐작하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로 물가는 오르고, 백성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져만 간다. 임진란 때 올린 북이 다시 올렸다는 소문까지 퍼지면서 혼란은 더욱 깊어진다. “가소로운 일”이라는 판단은 일기에서 기록하고 있는 상황들에 대한 일종의 탄식일 수도 있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윤식은 스스로 어떤 책임을 느끼거나 대책을 생각해내지는 못한다. 근심과 무력감만을 보여줄 뿐이다.

## 5.2. 러시아·일본의 개전과 전황

러시아와 일본의 전쟁이 실제로 일어난 이후, 김윤식은 전쟁 상황에 대한 각종 정보를 지속적으로 일기에 기록했다. 『황성신문』 이외에도 『대동신보』, 『대한일보』 등 일본인이 발행한 신문들을 함께 언급하였으며,<sup>27)</sup> 목포 인근의 일본인들로부터 전해진 소문 또한 자주 거론하였다.

25) 『속음청사』하 1903년 10월 3일, p. 60. “今年秋夕, 村村宰牛, 而肉價一向高騰. 民間以日俄交仗之說, 空然騷動, 爛漫宰牛而食之. 亦可笑也.”

26) 『속음청사』하 1902년 3월 13일, p. 8.

27) 『대동신보』(大東新報)는 1904년 4월에 일본인 기쿠치 겐조(菊池謙讓)가 서울에서

[표 4] 러일전쟁 시기의 러시아 관련 기록

일자	출처	주요 내용
1904. 2. 3	황성신문(7~10일)	일본의 개전 방침과 각국의 중립 표명
1904. 2. 9	일본인편지(정운복)	목포의 신문에 실린 개전 소식
1904. 2. 10	현지 소문	일본의 지계 제작 소문(한국인을 이용한 운송 목적)
1904. 2. 11	편지(정운복)	일본인이 전하는 일본 승전의 소식
1904. 2. 15	벧사람(충청도)	해전의 풍경
1904. 2. 23	일본인편지(정운복) 및 목포신문 호의	개전 초기의 전황
1904. 2. 29	황성신문	12월 26일~1월 8일. 이미 들은 바와 같은 전황. 일본 보호국의 가능성에 대한 소문
1904. 3. 2	정운복 (원출처 일본인)	미국, 영국, 청국에서의 자발적 기부 “공전(公戰)”, “의전(義戰)”으로 칭송하는 세계 여론
1904. 3. 5	황성신문(9~11일)	고종의 일본군 지원, 러시아 내부의 반란 조짐
1904. 3. 13	황성신문(15~18일)	한반도에서의 육군 충돌 조짐, 러시아에 불리한 여론
1904. 3. 28	편지	알렉세예프의 호언장담과 패전 영국신문의 ‘일본보호국’ 언급
1904. 4. 6	황성신문(10~15일)	러시아 황제의 친정설(親征說)
1904. 4. 14	장운선(방문객)	정주의 전황. 러시아군에게 피살된 의주 백성들
1904. 5. 8	편지, 황성신문, 한성신보	러시아의 위법 행위와 패배 일본군의 삼엄한 군기(백성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음)
1904. 5. 17	목포신문(1장)	봉황성(鳳凰城)의 전투

창간한 것으로, 동일 제호의 국한문판과 일본판이 발행되었다. 『대한일보』(大韓日報)는 1904년 3월에 인천에서 창간되었으며, 사장은 일본인인 아리후 주로(蟻生十郎)이었다. 1906년 8월까지의 국문으로 간행되었다. 결국 김윤식은 국문 또는 국한문으로 기록된 일본인 발행 신문을 읽었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두 신문의 개략적인 경향에 대해서는 임경석 편(2010), 『동아시아 언론매체 사전: 1815~1945』, 논형 참조.

일자	출처	주요 내용
1904. 6. 5	황성신문(13~16일)	알렉세예프의 사임과 러시아군의 약탈
1904. 6. 21	목포에서 온 사람	러시아 배가 일본 영사의 배를 공격했다는 소문
1904. 7. 12	황성신문(9~18일)	러시아의 일본 상선 공격
1904. 8. 20	대동신보, 대한일보	일본의 승전 소식
1904. 8. 25	황성신문(5~6일)	여순(旅順)의 해전
1904. 9. 26	황성, 대동, 대한	요양(遼陽)의 전투와 전사자 수
1904. 10. 8	황성신문(17~24일)	관북에 러시아 군사들이 왕래하여 소요가 있음
1904. 11. 1	대동신보, 대한일보	만주의 전투(양측 다수의 사상자) 독일, 프랑스, 미국의 움직임
1904. 11. 11	김유중(아들)	봉천(奉天) 일대의 악전(惡戰)
1904. 12. 10	황성, 대동, 대한	대한제국 군대의 관망과 일본군의 책망
1905. 1. 11	황성신문(30~2일)	러순 함락과 항복한 장군 스테셀의 자결 <sup>28)</sup>
1905. 2. 3	대동, 대한	봉천에서의 결전 준비
1905. 2. 8	황성신문(25~28일) 대동신보, 대한일보	러시아 국내의 반란(자유당, 허무당 등)과 공장 파업 정부의 대책 실패와 피난설, 핀란드 등의 독립 요구
1905. 2. 10	목포에서 온 사람	일본의 상선 징발
1905. 2. 17	황성신문(6~7일)	훈하(淸河)에서의 일본 승리
1905. 3. 22	세 신문 <sup>29)</sup>	봉천 함락
1905. 3. 27	대동, 대한	러시아의 연패와 내란의 발생
1905. 4. 4	황성, 대동, 대한	일본의 개원(開原) 점령
1905. 4. 21	세 신문	대해전의 조짐
1905. 4. 24	세 신문	러시아 함대의 이동
1905. 4. 27	세 신문	발틱 함대의 이동과 일본의 대비
1905. 5. 27	김윤식(목격)	러일전쟁 화보를 보여주며 돈을 받는 사람
1905. 6. 3	목포	발틱 함대의 패전과 일본의 환호
1905. 6. 7	세 신문	발틱 함대의 패전

일자	출처	주요 내용
1905. 6. 14	세 신문	일본의 해전 승전보
1905. 6. 19	세 신문	러시아 황제의 통곡, 영국과 미국의 강화 주선
1905. 7. 20	세 신문	강화 담판의 대표와 일정 확정
1905. 9. 1	세 신문	강화 담판 미결 ‘한국에 대한 일본의 보호’ 조항 확정
1905. 9. 13	황성, 대한	강화 담판과 일본 내에서의 불만
1905. 9. 16	대판매일신문	강화 담판에 대한 일본에서의 불만과 구미에서의 칭송
1905. 9. 27	황성, 대한	강화조약과 일본에서의 반응(화약문 요약 제시)

이 정보들 가운데는 실제 사실과는 차이가 있는 것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이들을 통해 우선 전쟁 상황에 대한 관심도가 어느 정도였는지는 짐작해볼 수 있을 듯하다. 일기에 나타난 내용을 날짜별로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러일전쟁은 일본군이 한반도에서 보도 통제와 검열에 관여하는 계기가 된 사건이기도 했는데, 일본군의 움직임을 보도함으로써 군사기밀을 누설하는 일이 많다는 것이 그 직접적인 이유였다.<sup>30)</sup> 따라서 당시의 신문 기사는 적어도 내부 검열은 거친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황에 대한 기사나 소문을 일기에 옮겨놓은 사례는 적지 않게

28) 스테셀(Anatoli Mikhailovich Stessel)이 자신의 병졸과 생명을 구해 줄 것을 청하는 항서(降書)를 보내고서 화약고에 불을 붙여 자결했다고 하였으며, 그 충勇에 대한 칭송이 있었다고 했다. 그런데 여기에는 “뒤에 들으니 죽지 않았다고 한다(追聞不死)”는 주석이 붙어 있다.

29) “세 신문”[三新聞]을 보았다는 기록이 이하에 여러 차례 나타나는데, 이는 『황성신문』, 『대동신보』, 『대한일보』를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서는 일기의 기록에 따라 “세 신문”으로 표기한다.

30) 정근식(2003), 『식민지적 검열의 역사적 기원: 1904~1910』, 『사회와 역사』 64, 한국사회사학회, pp. 11-12; 정진석(2008), 『극비 조선총독부의 언론검열과 탄압』, 커뮤니케이션북스, pp. 23-30. 1904년 3월 1일에 일본공사 하야시(林權助)가 『황성신문』의 기사를 지적하면서 ‘충분한 취체법(取締法)’을 만들도록 요구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보이는데, 이는 대한제국이나 자신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한 전쟁의 경과 및 결과에 대해 관심을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일 것이다.<sup>31)</sup>

일기에 옮겨진 기사의 내용에 있어서는 일본 측에 유리한 정보, 또는 일본의 시각에 가깝게 어느 정도 편향된 정보가 많다는 점을 하나의 특징으로 들 수 있다. 이는 일본인들의 거주지와 가깝다는 지도(智島)의 지리적 특성과도 관련된 것일 수 있다. 함께 유배 생활을 하던 정운복(鄭雲復)이 일본어를 할 수 있고 일본인들과 친분이 있었으니, 그를 통하여 김윤식이 일본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정보를 접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것이다. 또한 『황성신문』에 일본에서 유입된 정보가 실리는 일이 적지 않을 뿐 아니라,<sup>32)</sup> “목포의 신문”을 비롯하여 여기에 언급된 신문들은 일본인들이 간행한 것이 대부분이다. 결국 개전의 경위와 세부적인 전황이 일본 측의 시각에 의한 묘사를 반영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실제 일본군의 패전 또는 고전의 소식을 전한 예는 상당히 드물어서, 아들인 김유증이 전해준 봉천 지역에서의 어려운 전투 소식(1904. 11. 11) 정도가 예외적인 것처럼 보인다. 또한 악행을 저질러서 배척받는 러시아군과 엄정한 군기를 지켜서 칭송받는 일본군이 대비되는 사례 또한 적지 않은데, 이 또한 기본적으로는 정보의 출처가 관련된 문제일 것이다.

그렇지만 이는 또한 러시아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러한 이미지가 이미 자리 잡은 상태에서 부정적인 정보가 유입될 때보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임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바이다. 김윤식 자신의 견해나 발언에서 그러한 사

31) 일본군의 검열 계획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신문이 전황 관련 보도를 계속했다는 점도 하나의 원인일 것이다. 실제 이 당시의 검열과 관련하여 최초의 신문 정간 사건이 나타나는데, 이는 1904년 8월 13일에 일본인이 간행하던 『대동신보』에 내 려진 정간 명령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정근식(2003), p. 12.

32) Vladimir Tikhonov (2014), p. 8.

례가 보이지는 않지만, 여기에는 또 하나의 논리적 근거가 더해질 수 있다. 당시에 널리 퍼진 견해 가운데 하나인 ‘전제국’(專制國)에 대한 부정적 이해가 그것이다. 다음은 개전 초기에 정운복이 전해준 것으로 추정되는 정보를 서술한 부분인데, 이는 그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다.

러시아는 유럽의 전제군주국으로 정치가 부패하였으며 오직 남의 토지를 탐하는 성질만은 대대로 지키고 변하지 않으니, 만국이 원수로 여기고 미워하는 바이다. 이제 일본과 전쟁을 시작하니, 누구도 그들의 패배를 불행히 여기지 않으며 다투어 일본인을 돕는다. 일본인의 이 전쟁은 가히 세계 초유의 의전(義戰)이라 일컬을 만하다.<sup>33)</sup>

남의 토지를 탐하는 본성을 여전히 가진 ‘부패한 전제군주국’이 곧 러시아의 구체적인 이미지인 셈이며, 그러한 러시아와 결전을 벌이고 있는 일본은 의로운 전쟁을 수행하는 셈이라는 구도가 여기에는 정확히 드러난다. 같은 날의 일기 서두에서는 “미국의 워싱턴 사람들은 모두 일본의 이 거사[개전]가 세계의 공전이라고 여긴다.(美國華盛頓人, 皆以日本此舉, 爲世界公戰.)”고 하였는데, 이 또한 일본이 세계를 대표하여 러시아와 전쟁을 벌이는 의로운 일을 하고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는 셈이다.

한편 한국의 운명과 관련해서는 ‘보호국’이라는 결말이 서구에서, 그리고 서구를 인용하는 일본인들에게서 거듭 언급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소문에 대해 탄식하기는 하지만, 결국 김윤식이 이른 시기부터 한국의 보호국화에 이르는 요구가 존재한다는 점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이나 타개책을 구상하는 사례는 보이지 않는데, 이는 닥쳐올 현실에 대한 무력감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3) 『속음청사』하 1904년 3월 2일, p. 81. “俄國爲歐洲專制君治之國, 政事腐敗, 獨其貪人土地之性, 世守不變, 爲萬國之所仇疾. 今與日本開戰, 人無不幸其敗北. 爭助日人, 日人此戰, 可謂世界初有之義戰.”

### 5.3. 러시아의 내부 사정과 혁명

『음청사』에서는 개전 초기부터 일본의 승리와 러시아의 패배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이 실제의 전황을 정확하게 반영한 것은 아닐 가능성은 정보의 출처에서 짐작해볼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전황에 따른 러시아 내부의 상황 변화에 대한 묘사 또한 사실과 부합한다고 믿기는 어려울 수 있다. 패전으로 인한 황제와 국민들의 분노 및 절망감, 황제가 직접 전장에 나갈 것이라는 친정설이 여러 차례 언급되고 있으며, 러시아 국내에서 반란의 조짐이 나타났다는 언급도 찾아볼 수 있다. 이런 요소들은 당시의 러시아 사정과 어느 정도 유사한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동시에 일반적으로 전쟁에 패배한 국가 내부에서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할 만한 것들이기도 하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김윤식이 신문 등에서 얻은 러시아 국내의 소식 가운데 패전의 결과로 예상할 만한 사건들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일기에 기록했을 것이라는 추정을 해 볼 수도 있을 듯하다.

러시아에서의 반란의 조짐과 관련된 서술은 세 번 정도 보이는데, 그 가운데 둘은 전쟁 초기의 일을 기록한 대목에서 보인다. 뤼순에서 패배하고 여러 나라가 중립을 선언하여 러시아 함대가 쫓겨나게 되니, 각지에서 반란을 생각하고 조정에서는 두렵게 여긴다고 하였으며(1904. 3. 4), 하얼빈이 위태롭게 되니 러시아 수도의 여론이 악화되고 “반드시 내란이 발생할 것(必生內變)”이라고 했다(1904. 5. 8).

한편 러시아의 패전이 거의 굳어진 시점에서는 실제의 내란이 발생했다는 서술이 나타난다. 다음은 1905년 3월 27일의 일기 가운데 한 부분이다.

10일부터 14일까지의 『대한일보』와 『대동신보』를 읽었다. 일본과 러시아의 전쟁에서 러시아인이 연달아 패하였다. 훈허강[渾河]이

단단히 얼어붙자 일본군이 바로 건너와 사면으로 공격하여, 봉천, 무순, 철령, 홍경을 차례로 점령하였다. 러시아군의 사상자는 20여만 명이고, 내버린 군기와 음식이 산처럼 쌓였으며, 일본군이 승세를 타서 계속 몰아갔다. 상트 페테르부르크가 진동하고, 내란이 어지럽게 일어났다. 그러나 러시아 황제는 오히려 전쟁을 계속할 것을 고집하며, 병사 30만을 뽑아 동쪽으로 와서 옛날의 위명을 회복하기를 바란다고 한다.<sup>34)</sup>

러시아의 세력권에 있던 만주 지역의 도시들이 차례로 점령당했고, 패배한 러시아군은 막대한 인적·물적 손실을 입은 상황이라고 했다. 이 시점에서 거론된 ‘내란’은 1905년 러시아 혁명에 해당될 것인데, 그 묘사는 앞서 개전 초기에 “반드시 내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추정한 부분과 큰 차이가 없다. 또 러시아 황제의 친정설도 또한 전쟁 초기에 언급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결국 여기에서의 서술은 패전의 결과로 자연스럽게 예상되고 이해될 만한 수준의 ‘내란’으로 혁명을 이해한 것이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그렇지만 『음침사』에서 러시아 혁명의 상황에 대한 묘사를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것은 아니다. 1905년 2월 8일의 일기에서는 자유당과 허무당, 그리고 노동자와 학생들의 소요와 파업을 언급한 바 있으니, 혁명의 상황에 대한 보다 진전된 서술을 보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5일부터 28일까지의 『황성신문』을 읽었다. 『대한일보』와 『대동신보』도 각기 4장이었다. …… 러시아에서는 뤼순이 함락된 이후로 온 나라의 민심이 크게 끓어올랐다. 자유당, 허무당 등과 노동자, 학

34) 『속음침사』하 1905년 3월 27일, pp. 132-133. “閱大韓·大東兩報, 自初十日至十四日. 日·俄戰事, 俄人連敗, 渾河水堅, 日兵直渡, 四面蹙之. 奉天·撫順·鐵嶺·興京次第占奪, 俄兵死傷二十餘萬, 所棄軍火食物山積, 乘勝長驅, 彼得震動, 內亂紛起. 然俄帝猶堅執續戰, 調兵三十萬東來, 冀復舊日威名云.”

생들이 도처에서 소란을 일으키고 공장들은 파업 동맹을 하였는데, 모두가 정부의 압제에 허물을 돌렸다. 러시아의 황제가 부득이하야 바야흐로 정치를 개혁하고자 하는데, 백성이 원하는 바에 따라 자유의 권리를 주었다. 그렇지만 소동은 더욱 심해져서, 잇달아 죽이는 데도 이를 막을 수 없었다. 황제와 태후가 피난했다는 설이 나오기에 이르렀으며, 또 핀란드와 폴란드는 이 틈을 타서 국권을 회복하고자 한다고 전한다.<sup>35)</sup>

앞서 살펴본 3월 27일의 일기와 비교해 보면, 약 50일 전의 일기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구체적인 상황과 명칭을 기록한 점이 인상적이다. 러시아 황제를 비롯한 정부의 대책과 그 실패, 그리고 러시아에 예측되어 있던 핀란드와 폴란드의 국권 회복 문제에 대한 언급까지 등장하고 있다. 이처럼 진전된 이해를 보인 이유는 무엇인가.

이에 답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보의 출처인 1월 25일에서 28일까지의 『황성신문』 기사 내용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해당 시점의 ‘외보’(外報)란에는 러시아 관련 기사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데, 이 가운데 러시아의 내부 상황 특히 혁명의 전개 과정에 대한 기사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표 5]는 해당 기간 동안의 『황성신문』 외보란 기사를 정리한 것이다.

35) 『속음청사』하 1905년 2월 8일, p. 129. “閱皇城新聞, 自二十五至二十八日. 大韓日報·大東新報各四張. … 俄國自旅順陷落以後, 舉國民情大沸, 自由·虛無等黨, 勞動者學校生, 到處起鬧, 各工廠罷工同盟, 皆歸咎於政府壓制. 俄皇, 不得已方欲改革政治, 從民所願, 與以自由之權. 然騷動猶甚, 誅戮相繼, 莫可禁止. 至有皇帝及太后避亂之說. 芬蘭·和蘭又欲乘時復國云.” 원문의 “네덜란드”[和蘭]는 명백한 오류이며, “폴란드”[波蘭]를 오기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波”를 “和”로 잘못 탈초하여 나타난 결과로 보이는데,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다. 여기서는 고쳐서 인용한다.

[표 5] 1905년 1월 25~28일자 『황성신문』의 ‘외보’란 기사 요약

날짜	기사 제목	주요 내용
1월 25일	日軍의 公報	일본 기병의 승전
	俄國의 豫算	[런던] 러시아의 1905년 예산 감축
	日本艦隊의 根據地	[런던] 일본 함대의 인도양 근거지 선언
	美國의 對淸策	미국의 청국 문호개방과 영토보전 보증
	俄國의 通牒	러시아에서 일·청의 締約으로 인한 중립위반 통첩 → 독일은 접수 거부, 미국은 조사 착수
	俄國의 八大革命黨	[독일신문] 러시아의 8개 혁명당이 선언서 발표
1월 26일	俄京의 革命運動	[大韓日報東京電] 15000명의 청원, 군대와 혁명당의 충돌, 황궁 발포 사건, 사상자, 해군공장 파업, 황제·황태후의 피난
	日俄大戰의 臨迫	[營口電] 러시아군 부상자 매일 200~300명 운송
	法國新聞의 所論	[베를린] 프랑스 신문의 ‘청국 중립 문제’에 대한 의견
	俄國貴族의 會議	모스크바에서의 귀족회의 → 황실 藩屏으로 협력 결의 부결, 議院 설립 청원 결의
	英法協定の 說	[베를린] 파리 발행 신문에서 ‘영불협정’ 공포 보도 (만리장성 이복의 러시아 領有 승인 포함)
	馬賊의 募集	러시아 군대가 전선 보호를 위해 만주의 마적들 고용
1월 27일	俄都革命運動	[大韓日報東京電] 살육, 화재, 흥흥한 인심. 철공장과 해군공장의 파업, 水兵의 폭동과 진압군의 발포 거부
	淸廷의 辨明	러시아의 통첩(중립 위반 5개조)에 대해 청국에서 날조 또는 오해라는 취지로 각국에 변명하게 함
	日軍의 公報	[日軍의 公報] 일본군의 야습 성공과 戰果
	波艦東行說	발틱 함대가 마다가스카르를 지나 東行할 것이라는 소식
	大艦新造	일본에서 裝甲巡洋艦을 만들고 있다는 소식
	日軍의 戰利砲	일본군이 旅順에서 얻은 대포 546문
	遼西中立과 日本	러시아군이 遼西를 거쳐 기습한 까닭에 일본에서 청국에 중립 유지할 것을 경고함

날짜	기사 제목	주요 내용
1월 28일	俄國情況	[大韓日報東京電] 러시아의 ‘소란’이 지방으로 전파. 폴란드와 핀란드의 반란. 러시아군의 보급 곤란. 시베리아 철도 일부 파괴
	日軍公報	[日軍의 公報] 일본군의 러시아군 격퇴
	俄國大使의 談話	[런던] 주미러시아대사가 청국이 중립을 위반한 증거가 있으며 고치지 않으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함
	俄國勞働者의 請求條件	러시아 노동자들이 정부에 청원한 5개 조건(民權 보장, 자본가의 압제 교정, 언론·집회·종교의 자유 보장, 러일전쟁 중지, 國事犯 대사면)

『황성신문』에서는 여러 나라로부터 얻은 소식을 모아서 러일전쟁을 비롯한 외국의 소식을 전하고 있다. 러시아 혁명에 대해서는 ‘아국(俄國)의 팔대혁명당(八大革命黨)’, ‘아경(俄京)의 혁명운동(革命運動)’, ‘아도혁명운동(俄都革命運動)’, ‘아국 정황(俄國情況)’, ‘아국노동자(俄國勞働者)의 청구조건(請求條件)’ 등의 기사에서 자세하게 다루었다. ‘혁명’ 또는 ‘혁명당’을 직접 거론하였고, 파업에서부터 화재, 군대의 항명, 발포사건 및 사상자, 황제의 피난에 이르기까지 혁명의 과정과 양상들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였다. 또 혁명당의 종류나 노동자들의 청구조건과 같은 세부적인 정보까지 별도의 제목 하에 다루었다. 관심의 정도가 상당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가운데 비교적 자세한 기사의 출처가 『대한일보』로 되어 있다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을 듯하다. 『음청사』에서도 자주 거론되는 이 신문은 재한 일본인들이 발행한 것이며, 러시아 혁명의 양상에 대한 관심 또한 상당 부분은 일본인들의 관심에서 유래한 것이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음청사』의 기록과 비교해보면, 신문에서 다룬 범위가 훨씬 넓다는 점을 우선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일기에서 쓴 것처럼 3종의 신문을 모두 읽었다고 가정한다면, 김윤식은 기사 내용을 선택하거나 배제하고 다시 이를 재구성함으로써 러시아의 국내 사정을 서술하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보다 정밀한 논의를 위해서는 김윤식이 해당 일자의 『황성신문』 전체를 온전한 형태로 구해 읽었다는 근거가 있어야 하겠지만, 일기에 기록된 것만으로도 이에 대해 기본적인 추론은 가능할 듯하다.

선택과 배제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혁명’이나 ‘노동자’라는 말을 피하려 했거나 이해하지 못했다고 짐작해볼 수 있다. ‘혁명’은 기사의 제목에서도 사용하였으니 독자 김윤식의 눈에 띄었을 것이지만 실제 사용하지는 않았다. ‘노동자’는 폴란드·핀란드 문제를 거론한 기사가 실린 1월 28일자 신문의 같은 면에 언급되었으니 김윤식이 이 단어가 실린 신문을 구했을 가능성이 높지만, 이 또한 사용하지 않았다. 민권이나 자본가 등의 문제도 이 기사에 함께 거론되었으니, 이 역시 이해하지 못했거나 피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속음청사』 전체를 놓고 보면, ‘혁명’이라는 말이 전혀 사용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이미 1900년 8월의 일기에서 “손문의 혁명당”을 거론한 바 있으며,<sup>36)</sup> 이후에도 “배외혁명”(排外革命)<sup>37)</sup>, “(일본의) 혁명당”<sup>38)</sup>, “청국의 혁명당”<sup>39)</sup> 등을 언급한 바 있다. 따라서 단어 자체를 특별히 꺼리거나 피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자어인 ‘혁명’(革命)이 왕조의 교체를 의미한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러시아에서 일어난 ‘내란’에는 이 단어가 어울리지 않는다고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을 듯하다.

한편 김윤식이 재구성한 러시아 내부 사정의 면모에는 어느 정도 ‘민란’과 가까운 측면도 엿보이는데, 이 또한 주목할 만한 점이다. 특히 “정부의 압제”에 근본 원인이 있다고 한 점은 유의할 만한데, 이는 김윤식이

36) 『속음청사』상 1900년 8월 6일, p. 534. “청나라의 비밀결사는 그 수가 매우 많다. … 가장 근심할 만한 것은 오직 손문의 혁명당이다.(清國秘密結社, 其數甚多. … 最可憂者, 惟孫文之革命黨.)”

37) 『속음청사』하 1906년 3월 14일, p. 175. “淸國各會匪黨, 爲排外革命之計.”

38) 『속음청사』하 1911년 1월 26일, p. 342. “日本有大獄案, 幸德田太郎等十二人處死刑, 蓋欲除皇室政府, 而爲共和政治, 卽革命黨也.”

39) 『속음청사』하 1911년 10월 16일, p. 352. “見新聞, 淸國革命黨大熾.”

‘이재수의 난’을 체험하면서 정부의 실정과 지방관의 부패 및 무능에서 내란의 원인을 찾은 것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이재수의 난은 정부의 징세 정책 뿐 아니라 천주교의 폐단, 외국 세력과의 갈등, 제주도 백성 내부의 갈등 등과 같은 다양한 문제가 얽혀있는 사건이었지만, 김윤식의 일기에서는 정부의 실정을 강조하는 한편으로 백성들의 처지는 동정하는 경향의 서술을 취하고 있다. 물론 황제 일가의 피신이나 핀란드 등의 국권 회복 운동과 같은 문제와는 다소 거리가 있지만, 일기를 통해 신문 기사를 재구성하는 데 이러한 유사성이 일종의 이해의 틀을 제공하였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한다.

## 6. 맺음말

김윤식의 일기인 『음청사』를 통하여 러시아 혁명에 대한 인식과 이해의 정도를 살피고자 하는 것이 본고의 출발점이었다. 거칠게나마 검토한 결과로는, 김윤식이 러시아에 대해서 편견에 가까운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갖고 있었고 이에 따라 러시아에 대해 부정적인 묘사를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러시아 혁명의 상황에 대한 이해나 관심의 수준이 그리 높지 않았다는 점을 우선 지적할 수 있을 듯하다.

김윤식이 『황성신문』과 일본인이 발행한 몇 종의 신문들을 통해 상당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으리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왜 관심을 두지 않았나’라는 방식으로 문제를 바꾸어볼 수 있을 것이다. 러시아 혁명이 내포한 문제들—특히 노동자·농민과 자본가의 문제—에 대해 이해하거나 관심을 둘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이 우선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일 것이다. 이것이 김윤식 개인의 상황인지 또는 당시 한국인 일반의 상황인지에 대해서는 더 검토해야 하겠지만, 우선 그러한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한편으로는 동아시아 정세에 대한제국의 운명이 좌우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러시아 내부의 문제일 수도 있는 혁명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기울일 수 없었던 것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러일전쟁에 대해 세부적인 전황이나 외국의 반응까지 관심을 가졌던 것은 그것이 대한제국이 미칠 영향이 엄청나다라는 이유 때문일 것인데, 한반도에서의 세력을 잃어가고 있는 러시아 내부의 문제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었을 수도 있다. 이후에 이어지는 강제병합의 수순들이 개인과 국가의 운명 모두에 막대한 영향을 주게 되는 상황에서라면, 패전국 러시아의 내부 문제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다.

혁명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대한제국은 일본이나 중국과는 다른 입장에 놓여 있었다고 말할 수도 있다. 특히 이민족 왕조인 청나라를 멸망시키고 한족 중심의 국가를 건설하는 ‘혁명’의 필요성 여부를 논의해야 했던 중국과는 사정이 상당히 달랐다고 해야 할 것이다. 500년 이상 이어진 왕조를 여전히 유지해야 하는 관료의 입장에서는, 조선은 혁명의 대상이 되기 어려웠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사정이 대한제국의 지식인 전체의 관심이나 인식으로 일반화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결론을 유보해 두는 편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김윤식은 전통적인 경전 및 문장 학습을 통하여 과거제를 거쳐 관료가 되었으며, 따라서 새로운 외래 지식에 대해 상당한 수준의 관심을 지닌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으로는 전통적인 인식의 틀을 벗어나지는 못한 인물이었다고 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보다 진전되고 일반화된 논의를 위해서는 김윤식의 일기와 같은 수준의 자료를 갖춘 인물을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이는 현재의 상황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sup>40)</sup> 따라서 우선 김윤식의 일기를 하나의 사례로 제시하고,

40) 비슷한 시기에 일기를 남긴 인물로는 윤치호를 들 수 있다. 윤치호 또한 러시아에 대해 적지 않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그의 일기에서는 1905년 러시아 혁명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찾기 어려운 듯하다. 윤치호의 러시아 인식은 기본적으로는 부정적인 것이었지만, 거문도 사건, 청일전쟁, 을미사변과 아관파천, 러일전쟁 등 주요 사건에 따라 변화하는 면모를 보이기도 한다. 이에 대해서는 유영렬(2004),

앞으로 새로운 자료를 통하여 당시의 러시아-혁명에 대한 인식이라는 문제에 보다 입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개화지식인 윤치호의 러시아 인식」, 『한국민족운동사연구』 41, 한국민족운동사학회  
참조.

## 참고문헌

### 【자 료】

- 김윤식(2004), 『운양집』(한국문집총간328), 한국고전번역원.  
\_\_\_\_\_(1971), 『속음청사』(한국사료총서11), 국사편찬위원회.  
\_\_\_\_\_(1958), 『음청사』(한국사료총서6), 국사편찬위원회.

### 【논 저】

- 권오돈(1960), 『近朝의 漢文學에 對한 一考察: 滄江과 雲養을 中心으로』, 『인문과학』 5, 연세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김문식(2009), 『조선후기 지식인의 대외 인식』, 새문사.  
김성배(2009), 『유교적 사유와 근대국제정치의 상상력』, 창비.  
노대환(2012), 『19세기 조선 지식인들의 대러시아 인식의 변화』, 『역사문화연구』 42,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배항섭(2008), 『아관파천 시기 조선인의 러시아 인식』, 『한국사학보』 33, 고려사학회.  
유영렬(2004), 『개화지식인 윤치호의 러시아인식』, 『한국민족운동사연구』 41, 한국민족운동사학회.  
임경석 편(2010), 『동아시아 언론매체 사전: 1815~1945』, 논형.  
장인성(2002), 『장소의 국제정치사상』, 서울대학교출판부.  
정근식(2003), 『식민지적 검열의 역사적 기원: 1904~1910』, 『사회와 역사』 64, 한국사회사학회.  
정진석(2008), 『극비 조선총독부의 언론검열과 탄압』, 커뮤니케이션북스.  
허동현(2005), 『개화·일제기 한국인의 러시아 인식에 보이는 고정관념』, 『한국민족운동사연구』 42, 한국민족운동사학회.  
\_\_\_\_\_(2002), 『1880년대 한국인들의 러시아 인식 양태』, 『한국민족운동사연구』 32, 한국민족운동사학회.

Vladimir Tikhonov (2014), “The 1905-7 Russian revolution seen from Korea: Korean Periodicals Debate Revolutionary Russia”, *Horizons* 5-2, Institute of Humanit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원고 접수일: 2014년 12월 31일

심사 완료일: 2015년 1월 27일

게재 확정일: 2015년 1월 28일

ABSTRACT

---

The Image of Russia and the Understanding  
of the 1905 Russian Revolution Presented  
in Kim Yunshik's Diary, *Umcheongsa*

Hwang, Jae-moon\*

This essay examines the awareness and understanding of Russia and its 1905 Revolution by the Korean intellectuals of the time. As one significant case study, this essay pays attention to Kim Yunshik, focusing on his diary *Umcheongsa* (陰晴史). Kim was one of the prominent reformists who planned and executed the enlightenment policy. He was also an active newspaper reader who read and summarized newspapers in his diary through the long period of exile.

In reading the front part of the diary, it is observed that Kim had taken a sort of prejudice against Russia. Russia was often expressed as a greedy and aggressive country, and its image implicit in the text was not at all positive. It is assumed that these negative images had been formed through his inherent knowledge, in which Russia was regarded as a sort of savage tribe. It is clear that these images were maintained during his life, and it was supposed to be one of the major reasons why he regarded

---

\*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Russia as a properly defeated country similar to the opinions exposed in Japanese newspapers. Of course it is obvious that the more important reason was due to a lack of information that could be obtained by the Koreans of the day. In matters concerning revolution, he seemed to regard it as a rebellion in natural consequence of defeat. So some fundamental elements of revolution, for example the workers' struggle against monarchy and capitalism or the problem of the capitalist class, were not mentioned in his diary, though some articles in the newspapers that he read had indeed dealt with these issues. It is unclear whether Kim's case can be seen to be universal, but it can be said that it represents one of the major tendencies of the time in Korea.

